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2007 광주평화회의'에서 참가 학자들이 북핵문제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피터 벡 "北, 2·13 합의 위반시 경제제재 적용을"

보론초프 "北-美간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금융제재"

■ 13일 DJ센터서 '2007 광주평화회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아리랑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비오)은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북핵문제와 동북아평화체제'라는 주제로 '2007 광주평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북핵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 '2·13합의'이후 북핵문제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 각 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논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평화협정 타결 목표 시점은 북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가 교환되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평화협정이 북핵폐기 등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화과정을 원활히 관리하는 경제적·군사적·전략적 조치나 제도가 필요하다"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남북경제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제도화를 꼽았다.

피터 벡 국제위기그룹 동북아시아사무소 소장은 이어 '북핵 위기 돌파 이후 : 협력 혹은 대립'라는 발표논문에서 "6개국이 '2·13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북한이 여전히 자국의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검사의 어려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등과 관련한 불신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11월 국제위기그룹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8개 요점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만약 북한이 '2·13 합의'를 위반한다면, 경제적인 제재를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유엔의 지지는 안전이사회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며 "미국과 다른 4개 국가들은 북한과 계속적인 접촉을 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분과 팀장은 '북핵문제 및 현황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 화해 불가론'을 주장하는 매파가 온건한 비둘기파보다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어떤 조치도 매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자 회담의 주요 사안이자 북미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금융제재이며, 이 문제야말로 2·13합의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복잡한 논쟁은 아직 치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BDA 北 자금 송금' 급물살

日 아사히 "北, 일부 인출…나머지 달러화로 환전"

美 공화의원들 "송금 적법성 조사하라" 막판 변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들 자금 송금에 개입키로 하면서 교착상태를 거듭해 온 대북 송금의 길이 열린데 이어 BDA의 북한자금의 일부가 북한측에 의해 인출됐고 나머지는 모두 달러화로 환전돼 입금돼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BDA 문제와 관련, "북한을 비롯한 관련된 나라들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BDA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는 장애물 제거 정도의 과정"이라면서 "북한 핵시설 비핵화의 긴 과정에서 우리 목표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본연의 목표를 향해 관련국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BDA 해법과 관련, 미 일부 의원들의 적법성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내 사정에 대해 논평할 것은 아니지만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13일 "BDA에 있는 북한자금 전액의 이번 주내 송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재 송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송금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 BDA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가 2만5천달러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홍콩달러)으로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인출 자금 이외에 미국 달러화와 홍콩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으로 나뉘어 예치돼 있던 자금이 모두 미국 달러화로 환전돼 한 계좌에 예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자금이 모두 미국 달러화로 환전, 예치된데 대해 "미국 중앙은행을 경유해 한꺼번에 송금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미국 공화당 소속 6명의 하원의원들이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에 서한을 보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BDA 북한자금 송금 노력이 돈세탁 및 위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 BDA 자금 송금이 완료된다고 해도 이후 북핵 문제의 향배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측이 핵포기를 향한 합의를 이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토성 위성 타이탄은 지구 미래의 모습"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장차 지구 전체가 사막으로 변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스페이스 닷컴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타이탄의 표면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으나 지난 2005년 1월 탐사선 호이겐스가 짙은 대기권을 뚫고 2시간 반 동안 낙하하는 과정과 그 후 70분간 표면을 탐사하면서 보내온 방대한 자료는 타이탄의 대기가 원시 지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타이탄 표면의 거대한 사구들과 건조한 표면 등은 먼 미래의 지구를 미리 보는 것 같다고 카시니-호이겐스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한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 및 이탈리아 우주국 과학자들이 행성우주과학지 최신호에서 밝혔다.

학자들은 타이탄 표면의 호수와 바다는 극지에만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곳은 아주 차갑고 건조한 사막과 같다. 이 곳에는 바다가 없지만 언젠가는 지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축구경기 고도 제한 철회하라…" 국제축구연맹(FIFA)의 '고도 제한'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모랄레스(맨 왼쪽) 볼리비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눈과 자갈로 덮인 해발 6,000m의 볼리비아 최고봉 사자마 정상에서 축구팬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은 건강상 위험을 들어 산소가 희박한 해발 2,500m 이상에서 국제경기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美 국무부 보고서에 '한국어 현수막' 등장

동남아 여성 국제결혼·인신매매 실태 고발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곳곳에 나붙어 있는 낯익은 한국어 현수막 사진 한장이 2007년도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영어판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어로 된 현수막 사진을 싣고 브로커가 개입된 동남아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로변에는 자칭 국제결혼전문가들이 내건 '베트남 여성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쉽게 배우자를 만나기 힘든 한국 총각들을 국제결혼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은 지난 5년간 무려 3배나 급증한 4만3천121명에 달했고 이들 중 한국남성들의 72%가 동남아와 몽골 여성들과 결혼한 케이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들의 여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성 광고들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말레이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潘총장 덕에 뜨는 中 도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중국에서 뜨는 도시가 있다.

중국의 허난(河南)성 싱양(滎陽)시 가오산(高山)진으로, 반씨의 집성촌이다.

반씨 촌민들은 반 사무총장이 먼 친척이자 1천700년 전 한 가족이었다면서 반씨 집안의 족보를 들이밀었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소식이 널리 전파되면서 중국 언론들이 앞다퉈 반씨 집성촌을 찾아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싱양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

세계반씨문화연구회 회장인 반젠민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와 혈연관계에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반 사무총장이 풍수의 덕을 봤다는 촌민들의 말을 전했다. 가오산진 부근에 비상하는 학을 닮은 큰 산이 있는데 수백년간 위인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전해져왔다면서 이제 그 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상하이=연합뉴스